

十干과 十二支에 對한 考察

尹暢烈*

I. 緒論

天干과 地支의 出現은 殷나라 以前으로 추측되며 殷代에 이르러서 이미 丙의 이름과 紀日의 方法으로써 普遍的으로 使用되었다. 天干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天道變化의 마디를 表示하고 있으며 地支는 12개로 구성되어 地道變化의 마디를 表示하고 있다. 天地變化의 中心은 5와 6으로써 韓醫學에서는 이를 五運과 六氣의 變化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變化原理는 다시 陰陽으로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變化原理를 나타내는 天干은 $5 \times 2 = 10$ 으로, 땅의 變化原理를 나타내는 地支는 $6 \times 2 = 12$ 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筆者는 “干支와 運氣에 관한 研究”로 學位를 取得하였으나 당시 干支에 대한 研究가 미흡한 듯하여 이제 說文解字와 釋名 등의 書籍을 中心으로 十干과 十二支의 具體적인 내용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十干에 대한 考察

說文解字¹⁾에

甲(甲)은 東方之孟이니 陽氣萌動하여 草木戴孚甲之象이라 大一經에 曰人頭空이 爲甲이라하니라.

<解說> : 甲(甲이라고도 쓴다.)은 小篆體로 지금의 甲字이다. 甲은 東方의 始作이니 이때에는 陽氣가 처음으로 動하여 나무가 孚甲(草木의 씨의 겹질, 種子의 外

皮)을 이고 있는 모습을 따르고 있다. 段玉裁²⁾는 注에서 漢書藝文志를 보면 陰陽家에 大壹兵法1篇이 있고 五行家에 泰一陰陽25卷, 泰一29卷이 있다 하였으니 許慎이 稱한 大一經은 아마 이러한 類의 冊인 듯 하다고 하였다. 空은 腔(빈속 강)의 古字로 頭腔은 腦髓를 意味한다.

譯者注 : 甲에서 冂은 草木 或은 種子의 겹질로 陰을 象徵하고 冂은 속에 있는 어린 싹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나 陰氣에 의해 싸여져 가려진 모습이다. 그러므로 甲은 陽氣가 始發하고 萬物이 始生하는 意味를 代表하고 있다. 그러므로 一切事物의 始作을 모두 甲이라 한다. 따라서 甲은 第一位가 된다.

乙(乙)은 象春草木이 冤曲而出이니 陰氣尙翹하여 其出이 乙乙也니 與 丨同意라 乙承甲하니 象人頸이라.

<解說> : 小篆의 乙字는 지금의 乙字이다. 乙字는 봄에 草木이 억눌려서 굽어서 나오는 모습을 본뜨고 있으니 陰氣가 아직 強하여 그 나오는 狀態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통하는 丨(위 아래로 통할 곧)과 같은 뜻이다. 乙은 甲을 이으니 사람의 목을 본뜨고 있다. 이 말 역시 大一經의 말이다.(以下同)

譯者注 : 乙은 甲에서 陰氣의 抑壓을 받

2) 段玉裁 : 1735-1815. 清代의 經學者. 文字, 音韻, 訓詁學者. 字若膺, 號茂堂. 晩년에는 硯北居士, 長塘湖居士, 僑吳老人이라는 號도 使用했다. 江蘇 金壇人. 著書로 <說文解字注>, <故尙書撰異>, <六書音韻表>, <毛詩故訓傳定本>, <周禮漢讀考>, <春秋左傳古經>, <汲古閣說文訂> 등이 있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東漢의 許慎이 和帝 永元12년 A.D 100년에 完成.

아 완전히 펼쳐지지 못하고 굽어 있는 모습이다. 甲의 基礎 위에서 앞으로 進一步한 것으로 事物發展의 第2段階로 草木이 難出하는 모습이다.

丙(丙)은 位南方이니 萬物이 成炳然하여 陰氣初起하고 陽氣將虧라 ㄴ一入門하니 一者는 陽也라 丙承乙하니 象人肩이라

<解説> : 丙은 南方에 자리하니 萬物이 茂盛하게 자라나 陰氣가 처음으로 일어나고 陽氣가 장차 衰하게 된다. 一과 入門이 습하여 이루어진 會意字니 一은 陽氣를 象徵한다. 一은 陽氣이고 門은 멀 경자이고 入은 들 입자이다. 陽氣가 멀리 들어가 숨어서 장차 衰하려는 모습이다.³⁾

譯者注 : 丙의 段階는 乙을 繼承하고 더욱 자라는 過程일 뿐이다. 陰氣初起하고 陽氣將虧는 夏至에 一陽이 生하는 丁의 段階이므로 이는 許의 分명한 잘못이다. 丙은 위축되고 꼬부라졌던 어린 싹이 確然히 땅위로 솟아난 모습으로 안쪽에 숨어 있던 一陽이 表面으로 드러나고 밖에 있던 陰氣는 속으로 들어간 象이다. 즉 一은 陽氣上發의 象이오 門은 門의 뜻이니 丙는 陰氣가 내려가고 속으로 들어간 모습이다. 徐氏가 말한 “陽功成就而入天地陰陽之門之象也”라 한 것이 여기에 符合하는 解釋이다.

丁(丁)은 夏時에 萬物이 皆丁實이니 象形이라 丁承丙하니 象人心이라.

<解説> : 丁은 여름에 萬物이 씩씩하게 자라 充實해지는 때이다. 小徐本⁴⁾에는 丁實이 丁壯成實로 되어 있다.

譯者注 : 丁은 六書中 象形字로 丁은 草木의 가지와 잎을 |은 줄기를 본떠서 草木이 茂盛한 모습을 나타낸다.

戊(戊)는 中宮也니 象六甲五龍이 相拘絞

3) 段注 : 陽入門伏藏하여 將虧之象也라

也라 戊承丁하니 象人脅이라

<解説> : 戊는 己와 함께 五行에서 中宮인 土에 속한다. 小篆의 戊字는 六甲과 五龍이 서로 잡고(拘는 잡을구, 꺾안을구) 꼬여진(絞는 풀교, 묶을교) 모습을 본뜨고 있다. 이 部分은 內容이 分明치 않으므로 注를 併記한다. “段玉裁曰 六甲者는 漢書에 曰有六甲이 是也오 五龍者는 五行也라”라고 하였고 王筠은 注에서 “惠氏棟이 曰五六은 天地之中 故로 云六甲五龍相拘絞라 龍은 辰也니 辰有五子 故로 云五龍이라.”라고 하였다.⁵⁾

己(己)는 中宮也니 象萬物이 辟藏詘形也라 己承戊하니 象人腹이라.

<解説> : 己는 中宮으로 萬物이 盤辟(반벽 : 빙돌)하여 收斂하는 모습으로 글자의 모습은 詘(힐굴 : 굽음)되어 있는 形態를 본뜨고 있다.

庚(庚)은 位西方이니 象秋時에 萬物이 庚庚有實也라 庚承己하니 象人臍라.

<解説> : 庚은 西方에 자리하니 가을에 萬物이 단단하게 (庚은 단단할경 庚庚은 成實한 모양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辛(辛)은 秋時에 萬物이 成而熟이라 金剛味辛하니 辛痛卽泣出이라 ㄴ一후하니 후은 臍也라 辛承庚하야 象人股라.

<解説> : 辛은 가을에 萬物이 成熟하는 것이다. 金은 剛하고 맛은 매우니 맵고 아프면 눈물이 난다. 一과 후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글자니 후은 臍⁶⁾字이다. “段曰 一

4) 小徐는 五代時期 文字訓詁學者인 徐鍇로 徐鉉의 아우이다. 徐鍇의 字는 楚金이고 說文解字繫傳 40卷, 說文解字韻譜 19卷이 傳해지고 있다.

5) 王筠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6) 罪라는 글자와 같다. 辛痛泣出은 罪人の 모습이다. 臍는 犯法을 한 罪人이 코

者는 陽也니 陽入於 辛을 謂之愆陽이라.”하였다.

壬(壬)은 位北方也니 陰極陽生이라 故로 易에 曰龍戰于野라하니 戰者는 接也라 象人懷妊之形이니 承亥壬以子生之敍也라. 壬은 與巫로 同意라. 壬承辛하야 象人脛하니 脛은 任體也라.

<解說> : 壬은 北方에 자리하니 陰이 極度에 이르러 陽이 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의 坤上六爻에서 “龍이 들에서 싸운다.”하였으니 戰이라는 말은 接한다는 뜻으로 陰이 極하여 陽이 繼承하는 것이다. 사람이 妊娠한 모습을 본땀으니 (壬字를 尙文에서는 壬이라 하였는데 이는 배가 커진 모습이다.) 亥壬을 이어서 자식이 태어나는 차례이다⁷⁾. 壬이 巫와 同意라는 것은 巫는 사람이 兩袖로 춤추는 모습을 본땀고 壬은 사람의 배가 커진 것을 본땀 것이다. 壬은 辛을 이어서 사람의 장딴지를 상징하니 장딴지는 妊娠한 것처럼 볼록 튀어 나왔다.

癸(癸)는 冬時에 水土平하야 可揆度(규탁)也니 象水從四方流入地中之形이라 癸承壬하니 象人足이라

<解說> : 癸는 겨울에 水土가 活動을 그치고 고요히 있어 새로운 봄을 맞아 다시 生命을 蘇生할 것을 헤아릴(揆度)만 하니 물이 四方으로 부터 땅속으로 流入되는 모습을 본뜨고 있다.

譯者注 : 甲, 丙, 庚, 壬의 陽干은 東西南北의 位로 說明하고 乙, 丁, 辛, 癸의 陰干은 春夏秋冬의 四季로 解說하고 있으므로 東方之孟은 位東方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된다⁸⁾.

를 쟁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秦나라 때 皇字가 皇字와 비슷하다고 여겨서 罪字로 改字하였다.(改字의 始作이라고 한다.)

史記의 律書에서는

“甲者는 言萬物剖符甲而出也라

甲은 萬物이 符甲(껍질, 孚甲이라고도 쓴다)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乙者는 言萬物生軌軌也라

乙은 萬物이 싹튼 것이 겨우 껍질을 뚫고 나와 꼬부라져 있는 것이다.

丙者는 言陽道著明 故로 曰丙이라

丙은 陽의 기운이 확연히 드러나므로 丙이라 한다. 丙은 炳(밝을병)의 뜻이다.

丁者는 言萬物之丁壯也라

丁은 萬物이 싹싹하게 자라는 것이다. (靑壯年의 남자를 壯丁이라 하듯이 어린 싹이 크게 成長한 것이다)

庚者는 言陰氣庚萬物 故로 曰庚이라

庚은 陰氣가 萬物을 變動시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辛者는 言萬物之辛生 故로 曰辛이라

辛은 萬物이 새롭게 生命을 뿌리내리므로 辛이라 한다.(辛은 新也라. 萬物이 收藏되어 새로운 生機가 속에 潛伏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壬之爲言은 任也니 言陽氣任養萬物于下也라

壬이라는 말은 妊娠, 妊養의 뜻이니 陽氣가 뿌리에 다음 세대의 萬物의 生命을 任養한다.

癸之爲言은 揆也니 萬物可揆度이니 故로 曰癸라

癸라는 말은 揆(헤아릴규, 기다릴규)의 뜻이니 萬物의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려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故로 癸라 한다.”⁹⁾라 하였다.

여기서 戊己二干을 缺한 것은 다만 四正四隅만 말하고 中央은 省略한 것이므로

7) 그리하여 坤의 上六爻辭를 들었는데 坤上六은 亥에 屬한다.

8) 段玉裁 說文解字注 서울 大成文化社 1990 pp.740-742.

9) 司馬遷 史記 臺北 宏業書局 pp.1242-1249.

戊己土를 言及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漢書·律歷志에서는 모두 解釋하여

“出甲于甲
奮軋于乙
明炳于丙
大盛于丁
豐懋于戊
理紀于己
斂更于庚
悉新于辛
懷妊于壬
陳揆于癸”¹⁰⁾라 하였다.

劉熙¹¹⁾는 《釋名》에서 다음과 같이 十干을 說明하였다.

“甲은 孚甲也니 萬物이 解孚甲而生也라
비은 葜질¹²⁾이니 萬物이 葜질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다.

乙은 軋也니 自抽軋而出也라
乙은 軋¹³⁾의 뜻이니 자연스럽게 씩을 띄워¹⁴⁾ 힘들게 자라 나오는 것이다.

丙은 炳也니 物生炳然하여 皆著見(저 현)也라
丙은 밝게 빛남이니 萬物이 현저히 자라나 다 드러나는 것이다.

丁은 壯也니 物體 皆丁壯也라.
丁은 씩씩함이니 物體가 모두 씩씩하고 강한 것이다.

戊는 茂也니 物皆茂盛也라.
戊는 茂盛하게 자라는 것이니 萬物이 다 茂盛해지는 것이다.

己는 紀也니 皆有定形하여 可紀識也라
己는 기억함이니¹⁵⁾ 다 자라 一定한 形

10) 班固 漢書 臺北 鼎文書局 p.964.

態가 있어서 記憶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다.

庚은 猶更也니 庚堅強貌也라
庚은 바뀔 更字와 같은 뜻이니 이때가 되면 萬物이 堅剛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다.

辛은 新也니 物初新者 皆收成也라
辛은 새로와지는 것이니 萬物이 처음으로 새롭게 바뀐 것이 다 收斂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壬은 妊也니 陰陽交하여 物懷妊也니 至子而萌也라
壬은 妊娠함이니 陰陽이 交습하여 物體가 懷妊되는 것이니 子에 이르러 씩이 트게 된다.

癸는 揆也니 揆度而生하여 乃出土也라
癸는 헤아리는 것이니¹⁶⁾ 봄이 되기를 살피다가 生하여 비로소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 하였다¹⁷⁾.

北宋의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甲은 乃陽內而陰尙包之니 草木이 始甲而出也오

11) 東漢時의 訓詁學者. 字는 成國. 北海人. 北海는 지금의 山東省 高密. 《釋名》 27卷을 지었는데 音에 根據하여 事物의 名稱이 그렇게 불리게 된 緣由를 說明했다.

12) 符甲이라고도 쓴다.

13) 軋의 본 뜻은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면서 어렵게 나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씩이 비집고 나와 꾸불꾸불 자라는 모습이다.

14) 抽는 씩들추. 뿔추

15) 紀를 記의 뜻으로 쓴 것 같다.

16) 기다릴 揆로 解釋할 수 있다.

17) 劉熙著 琬謙撰集 釋名疏註補 上海古籍出版社 pp37-39

<解説> : ‘甲乃陽內而陰尙包之’는 甲은 陽에 속하지만 아직 陰에 싸여 있는 存在로 陰包陽은 陽이 發生은 始作했지만 아직 陰에 의해 屈抑을 당하여 氣가 능히 펴지지 못하고 있음을(氣不能伸) 說明하는 內容이다. 方位로 말하면 東北間은 東에 가까운 方位로 비록 生發하는 陽位이지만 아직 北方의 陰位를 떠난 것이 아니다. 이곳은 陰氣가 아직 尙存하고 陰氣에 의해 包圍된 方位인 것이다. 그리하여 古文의 甲字는 𠄎으로 쓰는데 여기서 𠄎은 包圍하고 있는 陰象을 𠄎은 生長하는 陽象을 나타낸다. ‘草木始甲而出也’는 草木을 가지고 甲의 氣象을 象徵하는 것이다. 甲은 흡사 草木이 初生할 때 頭上을 싸고 있는 包皮(표면을 싸고 있는 껍질)와 같다. 막 싹이 터오른 包皮는 甲의 形象으로 볼 수 있다. 이때 陽氣는 內部로부터 한창 生發하고 있지만 아직 陰氣에 依해 싸여 있으니 이는 草木이 싹트는 것을 빌려서 甲의 氣象을 說明하는 것이다.

乙者는 陽過中이나 然이나 未得正方하여 尙乙屈也라

<解説> : 乙은 甲陽이 점차 자라 그 싸여있는 陰을 뚫고 나왔으나 陰氣가 아직 다 물러가지 아니하여 陽氣가 여전히 抑壓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陽氣가 완전히 伸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陽過中’이라 한 것이다. ‘過中’은 陽氣가 싸여 있는 陰中으로 부터 뚫고 나와 半은 지나쳤다는 뜻이다¹⁸⁾. ‘未得正方’은 陽氣가 아직 正確한 方位를 얻지 못한 것으로 卽 “尙未離盡陰氣之陽氣(아직 陰氣를 다 떠나지 못한 陽氣)”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乙은 東南間에 位置하니 비록 北方의 陰位에는 屬하지 않지만 아직 正南方의 陽位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解釋하였는데 이는 不正確한 解釋이다. ‘尙乙屈’은 陽氣가 陰속에서 出함에 비록 이미 過半의 陽位는 얻었지만 아직 충분히 陽氣의 正位에는 居하지 못하고 여전히 陰氣에 抑屈을 당하여 완전히 伸展되지 못했다는 뜻이다¹⁹⁾. 乙屈은 乙字를 써서 陽氣가 屈曲되어 있는 모습을 象徵하고 있다. 乙은 古文에 𠄎로 되어 있는데 𠄎字의 뚜껑인 𠄎이 이에 떨어지고 𠄎만이 남아 있는 陽象이다. 그러나 아직 陰氣가 作用하여 抑屈하고 있으므로 𠄎字가 屈曲되어 𠄎字의 모습을 이룬 것이다. 草木이 始生할 때 뿌리가 종자의 冠속에서 出하는 것은 甲의 모습이고, 싸고 있던 冠이 脫落한 것은 乙의 모습이다.

又云乙은 軋也니 萬物이 皆解孚甲하고 自抽軋而出之니라

<解説> : ‘又云’은 月令注로부터 나옴을 指摘한다. ‘軋’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軋이라 한다. ‘孚甲’은 草木이 처음 싹틀 때 頭上에 씌어진 包皮이다. ‘抽軋’은 속으로부터 점점 질서 있게 抽長軋出(抽는 싹틀 추. 軋은 비집다, 밀치다, 떠밀다의 뜻, 즉 싹이 터서 비집고 나온다는 뜻)한다는 뜻이다. 乙에 ‘軋’字의 뜻이 있으니 萬物에 나아가 說明해 보면 乙氣의 때는 萬物의 草木이 生長을 始作하는 때이다. 頭上에 씌어져있는 孚甲은 甲氣의 때이고 時間이 좀 지나 씌어진 孚甲이 自然스럽게 脫落하고 그 속으로부터 가지와 줄기가 나오는 氣象이 바로 乙의 道理이다. ‘出之’는 甲의 때에 陰에게 包圍되어 있던 陽氣가 나와 乙의 位置에 와서 드러난다는 뜻이다.

丙은 乃陽上而陰下하고 陰內而陽外오

18) 本文의 中을 半의 뜻으로 解釋한 것이니 陰分의 半以上을 뚫고 나왔다는 뜻이다.

19) 乙은 쭉 펴지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𠄎부라질 을字이다.

<解説> : 丙은 火요, 火氣는 光焰上輝 하나 이것이 陽在上의 象이다. 등불의 뿌리는 濁하면서 검게 보이니 이것이 陰在下의 象이다. 또 火氣外發하여 萬方을 비추는 것은 陽在外의 象이요, 불 속이 濁하여 물체를 가리는 것은(隔物) 陰在內의 象이다. 丙字는 一과 入과 冂을 습하여 이루어진 字로 一은 陽氣 上發하는 象을 나타내고 入과 冂은 陰氣가 속으로 들어가는 象을 나타낸다. 陽上 陽外는 丙字 머리의 一에 대한 解釋이요, 陰下 陰內는 丙字 下部의 內의 解釋이다. 古文의 丙字는 丙으로 쓰는데 一은 陽이고 內은 門의 뜻이다. 徐氏가 이르기를 “陽功成就 而入天地陰陽之門之象也”라 하였다.

丁은 陽其強하여 適能與陰氣相丁이라

<解説> : 別本에 丁字가 下字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陽氣가 盛하여져서 앞으로 나아가 強하게 된 것이 바로 丁이다. 그러나, 陽氣가 비록 旺盛하나 겨우 微弱한 陰氣와 서로 對敵할만 하게 되어(相丁) 陽이 더이상 微弱한 陰氣에 損傷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王篇》에 “丁은 強也라”라 했고 《爾雅》에서는 “丁은 當也라”라 하였다. 이곳의 ‘陽氣強與陰氣相丁’은 모두 丁字의 뜻을 解釋한 것이다. 古文의 丁字는 丌으로 表記하고 있는데 《說文》에서는 “象人心(사람의 심장, 또는 가슴을 상징한다.)”이라 하였고, 徐는 “物挺然成立貌(물이 쪽 펴고, 또는 쪽 내밀고 서 있는 모습)”이라 하였다. 丙丁은 夏季의 氣令으로 여름철에는 炎暑는 升熱하지만 우물 밑은 도리어 찬데 이것이 丙의 陽上陰下하는 모습이다. 또 여름철에는 萬物이 茂盛하게 자라니 이도 陽強하여 陰氣와 서로 對敵하게 되어 陰과 陽이 相當(서로 힘이 비슷함, 우열이 없음)한 氣象이 丁의 모습이다²⁰⁾.

又云丙은 炳也니 萬物이 炳然著見而強也라

<解説> : 丙을 炳으로 解釋한 것은 月令注에 보인다. 炳은 明의 뜻이다. 丙丁은 모두 夏火로 이때가 되면 萬物이 陽火之氣를 얻어 모두 밝게 빛나고 분명히 드러난다(炳然而明, 顯然而現). 物이 그 氣運을 얻은 것은 體가 強해진다. ‘炳然’은 丙을 解釋한 것이고 強은 丁을 解釋한 것이다. 여름철에 草木의 枝葉이 茂盛하게 자라 밝게 드러나는 것이 丙의 氣象이다.

戊는 陽土也니 萬物을 生而出之하고 萬物을 伐而入之하더라

<解説> : 戊己가 모두 土이지만 戊는 陽土이고 己는 陰土이다. 伐은 敗의 뜻이다. 萬物의 出生은 辰 三月의 土用이요, 伐入은 戌九月의 土用이다. 萬物之生은 三月의 土用에서 出生하고 萬物之伐而枯者는 九月之土用에서 終結되어서 끝난다. 위의 뜻은 戊는 陽土로 萬物이 이 氣運을 얻어 出하는 것은 理致의 當然한 바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또 伐而入之라고 하였는가? 原來 終은 始의 뿌리이고 死는 生의 根源이다. 九月 土用으로 萬物이 伐入하는 것은 生氣가 뿌리로 들어갔다 다시 生의 本源이 되는 意味인 것이다. 萬物이 所入하는 戊의 土用이 바로 戊의 陽土이다.

己는 陰土也니 無所爲而得己者也라

<解説> : 陽土之功은 作用이 있어 有用해 보이지만 陰土之氣는 作用이 없어 無用한 것처럼 보인다. 위 文章의 뜻은 未六月의 土用은 丑 十二月의 土用과 함께 無所爲한 것이요 作用이 없는 것이다. ‘得己’는 그 位置가 이미 極點에 도달하여

어 이제 마침내, 겨우 (適은 마침적 또는 겨우적) 陰氣와 더불어 서로 對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 原文을 直譯하면 丁은 陽이 強하게 되

그쳐 나아가지 않는다(止而不進)는 뜻이다. 六月, 十二月의 土用은 그 氣가 無所爲의 作用을 하여 萬物이 여기에 이르면 止而不進한다. 六月中에는 萬物의 生長이 이미 極點에 도달하여 作用을 그쳐 나아가지 아니하고 十二月中에는 萬物이 姑死가 終點에 이르니 모두 止於其位하는 것이다.

又云戊는 茂也오 己는 起也라

<解説> : 이는 月令의 注解에 根據한 것이다. 戊는 陽土로 萬物이 茂盛히 자라나 “戊는 茂也라”라 한 것이오, 己는 陰土로 萬物이 그 陰氣에 抑制를 당하여 비록 停止해 있지만 여전히 復起의 조짐이 있으므로 “己는 起也라”라고 한 것이다.

土는 行四季之末하니 萬物含秀者를 抑屈而起也니라

<解説> : 이는 “戊爲陽土 己爲陰土”의 뜻이 아니다. 戊己는 모두 土에 屬하고 土의 全體는 모두 陰에 屬한다. 文中에 “己는 起也라”의 뜻이 內包되어 있는 듯하다. 土는 四季之末의 每 十八日씩을 主管한다. 草木 등의 萬物은 土가운데 含秀(榮華를 간직함)되어 있다가 四季之末月의 陰土에 의해 抑屈을 당한 뒤에 솟아 나온다. 抑屈되었다가 逢勃하는 生氣를 얻으므로 物之 生化는 土用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庚은 乃陰干陽이니 更而續者也오

<解説> : 庚과 辛은 모두 金氣이다. 庚은 本來는 陰干이지만²¹⁾ 庚이 金之陽이 되고 辛이 金之陰이 된다. 그러므로 庚이 金으로 비록 陰干이 되지만 陰干中の 陽

干이 된다. 庚은 陰中の 陽干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陽이 陰으로 轉換되어 陰이 陽을 繼承하지만 全體가 陰인 新位로는 바뀌지 않고 다만 陽位에서 陰位로 轉換되어 以陰繼陽할 따름인 것이다. 《韻會》에 “庚은 續也라”라 하였다. 이 句節은 《韻會》의 解釋에 根據하여 庚을 續字로 解釋한 것이다.

辛은 乃陽在下하고 陰在上하니 陰干陽이 極於此니라

<解説> : 辛은 陽氣는 衰하여 밑으로 가라앉고(下沈) 陰氣는 盛하여 위로 드러나는(上現) 象이다. 庚의 陰干之陽이 辛位로 轉換하면 全體가 陰位가 되는 極點에 到達한다. 陰干陽은 庚을 가리키는 말이다. ‘極於此’는 五行의 運轉이 庚에 이르렀을 때에는 단지 以陰續陽하여 아직 陰位之極에 완전히 到達하지는 못했지만 辛의 位置에 이르러 비로소 全體가 陰位인 새로운 極點에 이르게 되었음을 說明하고 있는 말이다.

庚은 更故也오 而辛은 新也라 庚辛皆金이오 金味辛은 物成而後에 有味일새라

<解説> : ‘更故’는 庚의 때에 陽氣가 바뀌어 陰氣가 됨을 말한다. 新은 辛의 때가 되면 金陰의 新位로 轉換되고 또, 至極함에 이름을 말한다. 庚과 辛은 모두 金이다. 辛은 金의 殺傷之味이다. 萬物之味는 모두 陰氣의 收斂作用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 金氣의 收斂作用은 萬物을 묶어 氣가 되게 하고 氣를 이룬 후에 味가 이루어지게 한다. 金干所屬之味에 辛字를 쓴 것은 바로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21) 甲乙丙丁戊를 陽干으로 보고 己庚辛壬癸를 陰干으로 보아 庚을 陰干이라 보았다. 즉 木火를 陽으로 金水를 陰으로 본 것이다. 이 部分은 干을 於로도 볼 수 있는 등 더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 된다.

又云 萬物은 肅然更茂하고 實이 新成하 나니라

<解説> : 月令注에서 나온 것이다. ‘肅然’은 嚴肅하다는 뜻이다. 萬物은 陰氣로

써 嚴肅해진다는 것이다. ‘更茂’는 庚을 解釋한 것이고 ‘實新成’은 辛을 解釋한 것이다. 이 뜻은 萬物은 庚辛의 陰氣를 얻은 뒤에 嚴肅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草木은 茂盛하게 자랐다가 更轉하여 收縮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다.

壬은 乃陽氣受胎하고 陰壬之니 乃陽生之位오

<解說> : ‘受胎’는 어머니 배속에 자식을 孕胎한다는 뜻이다. 壬은 北方의 水干이오, 水는 陰에 屬하니 이곳은 陰極하여 一陽生하는 方位이다. 陰은 어머니가 되니 어머니가 壬이오 一陽은 胎가 되니 胎는 子(十二支의 子)이다²²⁾. 위 句節의 뜻은 壬은 北方의 陰水이니 陰이 極盡해지면 陰中에 陽을 受胎하니 이것이 壬이라는 말이다. 壬은 一陽이 生하는 方位로 妊娠하는 어머니는 壬의 陰이오, 妊娠하는 자식은 一陽이다. 그러므로 坎卦(☵) 上下의 陰爻는 壬이 되고 中間의 陽爻는 胎니 子가 된다.

壬而爲胎는 與子同意니라

<解說> : 壬은 陰이오, 壬之陰이 一陽之胎를 妊娠하니 이것은 十二支中의 北方子와 意義가 相同하다. 子는 자식의 뜻이다. 壬의 陰속에 妊娠한 胎가 子이다.

22) “陰은 어머니가 되니”에서 이는 일반적인 사실을 指摘하는 말인가 아니면 陰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일반적 사실이라고 할 때는 論理의 展開가 순탄하지 못하고 壬을 가리킨다고 볼 때에는 壬을 陰이라 보는 것은 또한 무리가 따른다. 비록 水라는 陰에 屬하지만 陽의 位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論理 전개보다는 《史記律書》에서 十干을 十母라 하고 十二支를 十二子라 한데 根據하여 干支를 母子 관계로 보아 壬의 어머니가 子의 자식을 낳는다고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듯하다.

癸者는 揆也니 天畀이 至此하면 萬物이 閉藏하여 懷妊於其下라가 揆然萌芽하나니라

<解說> : 揆는 度(헤아릴 탁)의 뜻이다. ‘懷妊其下’는 癸가 盛陰閉藏之下에서 陽氣를 그 속에 懷妊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妊字는 壬의 뜻으로 解釋한 것이다. 壬의 때에 一陽의 妊娠를 始作하고 癸位에 이르게 되면 그 一陽之氣를 꼭 채워서 妊娠하게 된다(滿妊). ‘揆然萌芽’는 草木이 싹트기 始作하는 때를 말한다. 物의 萌芽는 陽에 의해 生하는 것이다. 壬의 때에 陽氣를 始妊했다가 癸位에 이르러 꼭차게 기르고 알맞은 때가 이르게 되면 懷妊했던 陽氣를 排出하여 萬物의 萌芽를 發生하게 한다. 揆然은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니(기다릴 규, 살필 규) 품고 있는 陽氣가 出生할 時節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 句節은 壬癸는 모두 北方의 陰水이기 때문에 天의 氣畀이 壬癸의 때에 이르게 되면 萬物이 癸陰에 依해 閉藏하게 된다. 그러나, 閉藏된 陰氣의 아래에서 또 陽氣의 胎를 懷妊하였다가 그 時節을 살피 懷妊했던 陽氣가 生發萌芽하기를 기다린다는 內容이다. 또, 壬은 十一月 冬至때 一陽이 來復하는 때요, 癸는 十二月 盛陰의 때이다. 天畀의 運行이 癸에 이르면 다음 봄의 發生升動하는 때를 기다렸다가(揆待) 萬物로 하여금 生發萌芽하게 하여 다시 甲乙之位로 轉換하게 한다.”²³⁾라 하였다.

Ⅲ. 十二支에 대한 考察

說文解字를 보면

“子(子)는 十一月에 陽氣動하여 萬物滋生 새 人以爲稱(빌릴 칭)이라 象形이라.

<解說> : 子는 十一月에 陽氣가 動하여 萬物이 불어나기 때문에 사람으로써 取象

23)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pp.13-14.

한 것이다. 六書中의 象形字이다. 王筠²⁴⁾은 아래의 예에 依據하여 十一月 앞에 마땅히 孳也(새끼나올자) 또는 滋也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段玉裁는 子는 본래 陽氣動하여 萬物이 滋生하는 呼稱이나 萬物中에서 사람보다 神靈한 것이 없으므로 사람의 모습을 빌린 것이라 하였고 子는 萬物이 자라는 모습을 본뜬 것이고 또한 사람의 머리와 手足의 形態를 본뜬 것이라 하였다.

譯者注 : 子는 籽(씨, 종자)의 뜻으로 種子가 孳萌을 始作함을 말한다. 自然界의 陰陽二氣의 消長하는 모습을 보면 子月에 一陽이 始生하여 地下에서 生한 陽이 점점 불어남에 따라 生物의 뿌리와 싹도 萌動孳生하기 始作한다. 따라서 옛날에 子와 같이 取象한 것인데 子는 胎兒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象徵하여 陽氣가 始生하는 象을 代表하고 있다.

丑(丑)은 紐(묶을뉴, 맬뉴)也라 十二月에 萬物動하여 用事라 象手之形이니 日加丑하면 亦舉手時也라.

<解說> : 丑은 묶는다는 뜻이다. 十二月에 萬物이 動하여 用事한다. 손의 모습을 본떴으니²⁵⁾ 每日 太陽이 丑에 가하면 또한 사람들이 손을 들어 본받기를 생각하는 때가 된다. 段玉裁는 “說文中에서 紐는 系也(묶을係의 假借字)”라 하여 結束한다의 뜻도 있지만 一曰結而可解라하여 묶었다가 풀 수 있는 경우를 紐라 한다고 하는데 根據하여 十二月에 “陰氣之固結이 已漸解 故로 曰紐也라”한다고 하였다. 도 象手之形에 대해 又者는 手也니 又而聯綴其三指니 象欲爲而溲冽氣寒하야 未得爲也

라”하였다.

寅(寅)은 龔也라(注當作演)라 正月에 陽氣動하야 去黃泉欲上出이나 陰尙強也니 象“不遠하야 龔寅於下也라

<解說> : 龔에 대해 “徐鍇曰龔은 龔斥之意니 人陽氣가 銳而出이나 上闕(문잠글애, 막을애)於“曰하니 所以擯(물리친뵈. 擯斥의 뜻)之也라(徐鍇가 이르기를 龔은 물리친다는 뜻이니 사람의 陽氣가 날카롭게 나오나 위에서 “와 曰가 막고 있으니 물리치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段玉裁는 龔(종지뵈뵈)은 演(땅속에 물흐를인)字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는 演은 水脈이 行地中演演也오 演은 長流也어늘 俗人이 不知二字之別하야 演字를 흔히 잘못 演字로 쓴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演으로 寅을 解釋한 것은 正月에 陽氣가 上出하고자 하는 것은 水泉이 上出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蟻(지렁이인)은 黃泉속에 구부리고 있다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 때 寅을 좇았다고 하였다.²⁶⁾ 또 이어지는 注에서 “地中之泉이라 故로 曰黃泉이라 陰上強은 陽不能徑遂니 “之屋於上 故로 从“이라²⁷⁾ 龔寅字는 字之誤也니 當作演 演이라 或曰當作蟻蟻이라 “은 象陰尙強이오 寅은 象陽氣去黃泉欲上出이라²⁸⁾”라고 하였다. 이러한 段玉

24) 段玉裁, 桂馥, 朱駿聲과 더불어 說文四大家에 속한다. 字는 貫山, 또는 莒友. 山東 安丘人. 平生을 說文研究에 몸바쳐 說文釋例 20 卷, 說文解字句讀 30 卷, 說文繫傳校錄 30 卷을 지었다.

25) 小篆의 丑은 손가운데 물건을 잡고 있는 象形字로 陰이 陽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象이다. 丑의 때에 二陽이 生하지만 아직 四陰에 의해 抑制를 당하므로 묶여있는 뜻이 나오게 된다.

26) 律書와 <<淮南子·天文訓>>은 蟻으로 寅을 解釋하고 있다.

27) 陰上強은 陽이 곧바로 到達하지 못하는 것이니 地窟(“은 집뵈. 사방이 地窟으로 덮여 씌여져 있는 집)이 위에서 덮고(屋은 덮개옥)있기 때문에 “을 좇은 것이다.

28) 寅에서 “은 陰氣가 強한 것을 본뜬 것이고 寅은 陽氣가 黃泉을 떠나 上出하

裁의 註釋에 依據하여 原文을 解釋해 보면 “寅은 봄이 되어 땅 속의 陽氣가 動하여 上出하고자 하는 것(養也)이다. 正月에는 陽氣가 動하여 黃泉을 떠나 上出하고자 하나 陰이 아직 強한 것이니 위에 障礙物이 덮어 씌어져서 이르지 못하고 아래에서만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卯(卯)는 冒也라 二月에 萬物이 冒地而出이라 象開門之形이니 故로 二月爲天門이라

<解說> : 卯는 무릅쓰다(머리에 이고 나아가다.)는 뜻이다. 二月에는 萬物이 땅을 뚫고 나오게 된다.²⁹⁾ 門을 여는 모습을 본뜨고 있으니 그러므로 二月이 天門이 된다.³⁰⁾

辰(辰)은 震(천둥소리진)也라 三月에 陽氣動하여 雷電振하여 民農時也니 物皆生이라 ㄸ乙匕하니 匕象芒達이오 厂聲이라 ㄸ二하니 二는 古文上字라 辰은 古文辰이라

<解說> : 辰은 천둥이 크게 울리는 것이다. 三月에 陽氣가 動하여 천둥과 번개가 쳐서 백성이 農事를 짓는 때니 萬物이 다 蘇生한다. 乙과 匕를 좇으니 匕는 芒達³¹⁾함을 본떴고³²⁾ 厂이 소리를 나타낸다. 二를 좇으니 二는 古文的 上字이다.³³⁾

譯者注 : 芒達을 풀의 草芒 또는 物芒이 外達한다고 解釋하는 者도 있다. 卽 芒을 棼字로 보지 않고 까끄라기棼字로 보는 境遇이다.

巳(巳)는 巳也라 四月에 陽氣已出하고 陰氣已藏³⁴⁾하여 萬物見하여 成文章하니 故로 曰巳爲蛇라 象形이라

<解說> : 巳는 巳이다.³⁵⁾ 四月에 陽氣가 다 나오고 陰氣가 다 숨어 萬物이 드

러고 하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러나 文章을 이룬 것이니 그러므로 巳는 蛇가 된다.³⁶⁾ 巳라는 글자는 상형자로 뱀이 몸을 도사리고 꼬리를 드리우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午(午)는 悟也라 五月에 陰氣悟³⁷⁾易하여 冒地而出也라 此與矢同意라

<解說> : 午는 거스린다는 뜻³⁷⁾이다 五月에 陰氣가 陽을 거슬러서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³⁸⁾ 이 글자는 矢와 같은 뜻이

29) 段曰 陽氣 至是始出地라

30) 段曰卯爲春門이니 萬物之已出이라

31) 여기서 棼은 棼棼. 達은 草達字의 뜻으로 크게 成長한다는 뜻이다.

32) 段曰 匕(발할化자의 古字)는 變也라 此는 合二字會意라(乙이 乙과 匕의 會意字라는 말이다.) 乙은 象春草木이 冤曲而出할새 陰氣尙強하여 其出乙乙이니 至是月하여 陽氣大盛하여 乙乙難出者가 始變化矣라 芒達의 芒者는 盡達也라

33) 이것은 우뢰소리가 上動한다는 意味이다.

34) 지금의 藏字

35) 段玉裁는 周易序卦傳에 蒙者는 蒙也오 比者는 比也오 剝者는 剝也라 하고 芻時傳에 曰 虛는 虛也라 하여 예로부터 訓誥에 이처럼 本字로써 訓하는 境遇가 있었음을 밝혀 巳는 巳(사)字이지 결코 巳(이)字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後世에 여러 冊에서 巳(이)로 고친 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36) 段曰 巳는 不可像也라 故로 以蛇象之니 蛇長而冤曲垂尾라 其字像蛇則象陽已出已藏矣라 巳는 무엇과 닮았다하기가 不可하다. 그래서 뱀으로 비긴 것이니 뱀은 길면서도 굽어 있고 꼬리를 뺏고 있다. 이 글자가 뱀을 본뜬 것은 陽氣가 다 나가고 陰氣가 숨은 것을 象徵한다.

37) 悟는 逆也라 거스릴오

38) 四月는 純陽이고 五月에 一陰이 始生하여 陽을 衝逆하는 모습이다. 繫傳(徐鍇의 說文解字繫傳)에 人은 陽이고 一은 땅이고 丨은 陰氣가 땅을 뚫고 陽을 午逆하는 것이라 하였다. 古者에 橫直交互를 謂之午라하고 一縱一橫曰午라고 한 것은 뜻이 引申된 것이다. 段玉裁는 이

다.39)

未(未)는 味也라 六月에 滋味也라 五行木이 老於未하니 象木重枝葉也라

<解説> : 未는 맛이다. 六月에는 萬物이 다 成熟하여 각자의 맛을 낸다.40) 五行의 木이 未에서 老衰하니41) 나무에 枝葉이 重疊된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申(申)은 神也라 七月에 陰氣成하여 體自申來이라 申自持也니 以舖時에 聽事하여 申且政也라

<解説> : 申은 神也에 대해 段玉裁는 神이라고 한 것을 理由를 알 수가 없다고 하고 宜當申으로 해야만 하니 巳는 巳也라고 한 例와 같다고 하였다. 또한 淺人이 不得其例하고 妄改爲神하였으나 古說을 考察해 보건대 符合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律書曰申者 言陰用事 申則萬物牧 故曰申이라하고 律曆志曰申堅於申이라 하고 天文訓曰申者 申之也라하여 모두 申으로 申을 解釋하였다고 具體的인 證據를 提示하고 있다. 그는 또 別說로 神을 身으로 해야 되니 아래 文章에서 陰氣成體라 하고 《釋名·晉書樂志》, 《玉篇》, 《廣韻》에서 모두 申은 身也라 한 例를 들고 있다. 그러나 後者は 近是하나 許慎의 뜻은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 王筠은 申, 身의 두 字는 모두 사람의 모습을 본뜨고 있는데 器官42)과 몸뚱이에는 반드시 神魂이 主將함이 있으므로 說文解字에서 申, 身의 解釋을 모두 神으로 한 것이라 하였다. ○ 七月에는 天地否卦를 이루어 아래의 三陰이 坤卦를 이루므로 陰氣成이라고 볼 수 있다. 申東에 대해 王筠은 擎斂之意43)라

字를 象形이라 하고 王筠은 指事라 하였는데 指事者는 視而可識하고 察而可見한 것이오 象形者는 畫成其物에 隨體詰誦한 것이므로 指事가 맞는 듯하다.

하여 申과 束을 다 묶는다는 뜻으로 보았으나 段玉裁는 申者는 引長(잡아당겨 늘이는 것)이오 束者는 約結(묶는 것)이라 하여 陰氣가 자라나 物體를 約束한다는 뜻으로 보았다. ○ 申自持也44)는 申이라는 글자가 생긴 由來로 그 뜻은 “叉手(각지깎)를 하고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을 좇은 것이다.”이다. 段玉裁는 申以象其申하고 申束以象其束한다고 하여 申은 陰氣가 퍼지는 뜻으로 束은 그 結果 物體를 오그라지게 하는 뜻으로 본듯하다. ○ 관이가 舖時(舖는 새참 卍字. 申時 즉 午後 4時 前後에 먹는 새참)에 일을 들어 아침의 政事를 檢束하는 것이다.

酉(酉)는 就也라 八月에 黍成하니 可爲耐酒라 象古文酉之形也라

○ 酉는 古文酉니 申과 酉가 申爲春門이니 萬物이 巳出하고 酉爲秋門이니 萬物이 巳入이라 一은 閉門象也라

<解説> : 酉는 이루는 것(就는 이룰 취)이다. 八月이 되며 기장이 익으니 가히 耐酒(진할주. 耐三重醇酒也라)를 빚을 수 있다. 이 글자는 古文의 酉(古文의 酉字는 酉의 形象을 본뜬 것이다.

○ 酉는 古文의 酉字로 酉字(酉는 小篆의 卯字이다.)에서 나온 글자이다. 酉는 春

39) 段玉裁는 화살촉이 수(午)와 비슷하니 둘 다 뚫고 나가는 것을 象徵한다고 하였다.

40) 王筠은 六月 다음에 빠진 文章이 있는 듯 하다고 하였다.

41) 《淮南子·天文訓》에 木生於亥하고 壯於卯하고 死於未라 하였다.

42) 耳目口鼻 等

43) 擎는 모을추. 擎斂은 모아서 거두어들인다는 뜻.

44) 申字와는 다르니 申은 절구구자로 小篆으로는 申이라고 써서 臼속에 쌀이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고 束은 卍까지길국자로 두 손으로 물건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門이 되니 萬物이 다 나오고 ㄱ은 秋門이 되니 萬物이 다 들어간다. ㄱ의 위에 있는 一은 門을 닫은 모습이다.

○ 酉라는 글자의 來源에 대해서는 說明이 없는데 一般的으로 甲骨文에 나오는 “술단지”의 뜻으로 보고 있다.

戌(戌)은 威也라 九月에 陽氣微하니 萬物畢成하고 陽下入地也라 五行土 生於戌하고 盛於戌이라 ㄱ戌一하니 一亦聲이라

<解說> : 戌은 威(불꺼질 멸)의 뜻이 있다. 段玉裁는 大徐(徐鉉)가 滅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火死於戌하고 陽氣至戌而盡故로 威 ㄱ戌하니 此以威釋戌之恒也라⁴⁵⁾하였다. ○ 九月에 陽氣가 微弱하니⁴⁶⁾ 萬物이 다 이루어지고 陽氣가 내려가 땅속으로 들어간다. ○ 그래서 段玉裁는 戌字가 ㄱ土中含一로 이루어 졌다고 했는데 戌가 土를 象徵하고 一은 陽氣를 象徵한다. 戌은 一(陽氣)이 土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陽下入地의 뜻이 된다. ○ 五行의 土가 戌에서 이루어져서 戌에서 盛하게 된다.⁴⁷⁾ ○ 戌와 一이 合하여 이루어졌으니 一은 또한 소리를 나타낸다.⁴⁸⁾

亥(亥)는 亥也라 十月에 微陽起하야 接盛陰이라 ㄱ二하니 二는 古文上字也며 一人男一人女也며 ㄱ二하니 象懷子咳咳之形也라 亥而生子하면 復從一起라

<解說> : 亥는 풀뿌리(亥, 풀뿌리해)이다. 十月에 微陽이 일어나 盛陰에 接하게 된다.⁴⁹⁾ ○ 二를 좃으니 二는 古文의 上字이다. 段玉裁는 이 말은 陰이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王筠은 上을 上聲으로 보아(이때는 오를상) 陽氣가 올라간다고 보았다. 一人男一人女에 대해 段은 像乾道

成男 坤道成女라 했고 王筠은 南女者是 所懷之字也라 하였다. ○ 二를 좃으니 품고 있는 자식이 咳咳한 모습을 본뜬 것이다. 王筠은 咳咳는 似指胞中拳曲之狀⁵⁰⁾이라 하였다. ○ 亥에서 자식을 나오면 다시 一을 좃아 始作한다. 이 말은 一에서 始作하여 亥에서 끝나고 亥에서 마치면 다시 一로 始作한다는 뜻으로 循環無端함을 나타내고 있다. 說文解字는 실제로 一에서 始作하여 亥에서 卅이 끝나고 있다.⁵¹⁾이라 하였다

<史記>의 <律書>에서는 十二支의 順序를 解釋하여

“子者 滋也 滋者 言萬物滋于下也
丑者 紐也 言陽氣在上未降 萬物厄紐未敢出也
寅 言萬物始生蟻然也 故曰寅
卯之爲言 茂也 言萬物茂也
辰者 言萬物之娠也
巳者 言陽氣之已盡也
午者 陰陽交 故曰午
未者 言萬物皆成有滋味也
申者 言陰用事 申賊萬物 故曰申
酉者 萬物之老也 故曰酉
戌者 言萬物盡滅 故曰戌
亥者 該也 言陽氣藏于下 故曰該也”⁵²⁾

45) 불은 戌에서 꺼지고 陽氣는 戌에 이르러 다하기 때문에 字는 火와 戌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글자이니 이것이 戌을 解釋하는 뜻뻘함이다.

46) 9月은 於卦爲剝으로 五陰方盛하고 一陽將盡이라

47) 段曰 戌午含德이라 天文訓에 曰土生於午하고 壯於戌하고 死於寅이라하니라

48) 段曰 戌者는 中宮이니 亦土也라 一者는 一陽也라 戌中含一이니 會意也라

49) 段曰 亥也者는 亥根也니 陽氣根於下也라 十月은 於卦爲坤이니 微陽이 從地中起하야 接盛陰이니 卽王下所云陰極陽生이라 故로 易曰龍戰于野라하니 戰은 接也라.

50) 咳咳라는 말은 子宮속에서 구부리고 있는(拳曲은 주먹처럼 구부러진 모양)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다.

51) 段玉裁 前揭書 pp.749-759.

라 하였으며

《漢書·律曆志》에서는

“孳萌于子
紐牙于丑
引達于寅
冒茹于卯
振美于辰
已盛於巳
罅布于午
味蔓于未
申堅于申
留執于酉
畢入于戌

該闕于亥 故陰陽之施化 萬物之終始”⁵³⁾
라 하였다.

釋名에서는

子是 孳也니 陽氣始萌하야 孳生於下也
라 於易爲坎이니 坎은 險也라

<解說> : 子是 불어나는 것이니(孳와
滋는 通用) 陽氣가 처음 싹터서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다. 易에서는 坎卦의 位(正北
方位)에 該當하는데 坎은 險하다는 뜻이
다.

丑은 紐也니 寒氣自屈紐也라 於易爲艮
이니 艮은 限也라 時未可聽物生하고 限止
之也라

<解說> : 丑은 묶는 것이니 寒氣가 스
스로 억누르고(꺾을굴, 억누를굴) 잡아매
는 것이다. 易에서 艮이 되니(東北位) 艮
은 그치게 하는 것이라. 때에 있어 아직
萬物이 生하는 것을 좃지 않고 그치게 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해 王先謙⁵⁴⁾의 《釋名
疏證補》의 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畢沅이 曰象傳에 艮은 止也라하니라. 王
先慎이 曰限與很은 義通하니 易艮卦鄭注
에 艮之言은 很也라하니 一陽이 在上하고

52) 司馬遷 前揭書 pp.1242-1249.

二陰이 在下하야 陽君陰臣이 不相與通이
라 說文에 很은 不聽從也라하니 竝與時未
可聽物生義로 近이라 又說文很下에 云一
曰行難也라하고 限下에 云阻(힘할조)也라
하니라 行難卽阻艱故로 高誘注秦策에 云
限은 難也라하야 直以難訓限하니 與此限
止로 義合이라

寅은 演也니 演生物也라

<解說> : 寅은 퍼는 것이니 生物을 널
리 퍼는 것이다.(演은 널리펼연)

卯는 冒也니 載冒土而出也라 於易爲震
이니 二月之時에 雷始震也라

<解說> : 卯는 무릅쓰는 것이니 비로소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易에서는 震이
되니 二月에 천둥이 처음으로 울리게 된
다.

辰은 伸也니 物皆伸舒而出也라

<解說> : 辰은 퍼는 것이니⁵⁵⁾ 萬物이
다 펼쳐져서 나오는 것이다.

巳는 已也니 陽氣畢布已也라 於易爲巽
이니 巽은 散也라 物皆生布散也라

<解說> : 巳는 그치는 것이니 陽氣가
다 펼쳐져서 그치는 것이다. 易에서는 손
이 되니 손은 흩어지는 것이다. 만물이 다
생해 퍼지고 흩어지는 것이다.⁵⁶⁾

午는 仵也니 陰氣從下上하야 與陽相仵

53) 班固 前揭書 p.964.

54) 1842-1917. 清代의 經學者이자 訓詁
學者. 字益吾. 號葵園. 湖南長沙人. 畢沅
이 지은 釋名疏證을 補完하여 釋名疏證
補를 지었다.

55) 畢沅이 曰伸之義는 訓孤而無據니 當訓
震이라야 爲安이라 白虎通에 辰者는 震
也라하고 說文에 辰은 震也라하니라

56) 王啓原이 曰巽爲風이오 說卦에 風以散
之라하니 故로 曰巽은 散也라

逆也라 於易爲離니 離는 麗也라 物皆附麗 陽氣以茂也라

<解說> : 午는 거스리는 것이니(作는 거스를오) 陰氣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와 陽氣와 서로 거스리는 것이다. 易에 있어서는 離卦가 되니 離는 붙는 것이니(麗는 붙을리) 物에 다 陽氣가 붙어서 茂盛해 지는 것이다.

未는 昧也니 日中則昊하야 向幽昧也라

<解說> : 未는 이루는 것이니 해가 中天에 있으면 기울어지기 始作하야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申은 身也니 物皆成其身體하야 各申束之하야 使備成也라

<解說> : 申은 몸이니 물이 다 그 몸을 이루어 各各 收斂하야 갖추어 이루게 하는 것이다.

酉는 秀也니 秀者는 物皆成也라 於易爲兌니 兌는 說也라 物得備足하야 皆喜說也라

<解說> : 酉는 꽃피는 것이니⁵⁷⁾ 꽃이 된다는 것은 萬物이 다 完成되는 것이다. 易에 있어서는 兌卦가 되니 兌는 기뻐한다는 뜻이다. 萬物이 만족하게 갖추어짐을 얻어 다 기뻐하는 것이다.

戌은 恤也니 物當收斂하야 於恤之也라 亦言脫也며 落也라

<解說> : 戌은 불쌍히 여김이니 萬物이 收斂함을 당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또한 벗으며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亥는 核也니 收藏百物하야 核取其好惡

眞僞也라 亦言物成皆堅核也라

<解說> : 亥는 核心이니 百物을 거두어 갈무리하여 그 좋고 나쁘고 참되고 거짓된 것의 核心을 取하는 것이다.⁵⁸⁾ 또한 萬物이 完成되어 다 단단해지는 것(이때 核은 굳을핵, 견실할핵)을 말한다.

그리고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子者는 北方寒水之位而一陽肇生之始니 故로 陰極則陽生이라 壬而爲胎하고 子之爲子니 此十一月之辰也니라

<解說> : ‘至陰’은 卽 至極之陰이다. 子는 北方至陰의 寒水之位에 該當한다. 陰極하면 陽生하기 때문에 子는 陰盛至極한 곳이지만 一陽이 또한 처음으로 始生하는 곳이 된다. ‘陰極’은 前篇에서 말한 壬을 가리키고 ‘陽生’은 前篇에서 말한 子를 가리킨다. ‘壬’은 壬의 至陰이 壬이 되니 이 壬字는 妊의 뜻이다. ‘胎’는 一陽之胎이다. ‘子之爲子’는 陰極하면 陽生하니 陰極이 壬이 되고 所生之一陽이 子가 됨을 말한다. 壬이 至陰이 되고 妊은 懷胎함이니 품고 있는 胎가 곧 子이다. 前篇에서 解說한 壬의 條文을 參考하기 바란다. ‘辰’은 《韻會》에 “辰은 時也”라 하였으니 또한 十二支의 異名이 된다. 子가 十一月 冬至 一陽來復의 氣象을 얻은 것이 바로 이 辰支이다. 따라서 子로써 十一月의 名稱으로 삼은 것이다. 古文의 子字는 “” 或은 “”라 되어 있는데 이는 胎兒의 手足이 어머니 懷속에 妊娠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子之爲子’의 뜻이다.⁵⁹⁾


至丑호대 陰尙執而紐之라 又丑은 陰也

57) 秀는 꽃필수字로 볼 수도 있고 《爾雅》의 不榮而實者 謂之秀(꽃피지 않고 열매맺는 것을 秀라 한다)에 根據하여 “열매맺을수”字로도 볼 수 있다.

58) 核을 覈(조사할핵)의 假借字로 보아 事實을 調査하여 取한다고 解釋할 수 있다.

59) 子之爲子에서 앞의 子는 十二支의 子, 뒤의 子는 子息의 子로 볼 수 있다.

며 助也니 謂十二月은 終始之際라 以結紐 爲名焉이니라

<解說> : 《說文》에 “丑은 紐也”라 하여 紐(맬紐, 묶을紐)字로 丑을 解釋하였다. 子時에 一陽이 始生하고 丑時에 二陽이 生하지만 이 때에 四陰之氣가 아직 盛하니 이는 陰氣가 陽氣를 잡고 抑制하는 時期이다. ‘紐’는 四陰이 二陽을 잡아 그치게 하여 發出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 있다. 古文의 丑字는 本來 “”라 하였는데 이는 손 가운데 물건을 잡고 있는 象形字이다. 이 말은 陰이 陽을 잡고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象이다. ‘丑은 陰也’라 한 것은 丑은 비록 二陽이 生하는 때이지만 아직 四陰에 의해 抑制를 당하므로 丑은 陰에 屬하는 것이지 陽에 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助也’라 한 것은 此篇 十二支의 釋例에 따라 글자를 解釋한 것으로 《嘉靖版二十一史·平書》에 보인다. 丑은 四陰이 二陽을 묶어(紐) 出現하지 못하게 하는 象으로 陰으로써 陽을 묶으니 陽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意義가 있다. 그러므로, 丑陰이 陽을 붙잡고 있는 것은 陽의 生長을 돕고 있는 것이다. 丑은 十二月의 名稱이다. 十二月은 그해의 끝이고 새해의 시작이니 이는 萬物이 收藏하는 終點이요, 또한 發生하는 始點이다. 丑은 始終之際에 該當하므로 “丑은 紐也라”라는 묶는다는 意味가 있고 十二月은 始終之際에 바로 해당하니 역시 매듭짓는다는 意味가 있다. 이것이 바로 十二月을 丑으로써 命名한 理致이다.

寅은 正月也니 陽已在上하고 陰已在下 하여 人始見之時라 故로 律管飛灰以候之 하나니 可以述事之始也라 又寅은 演也며 津也니 謂物之津涂也니라

<解說> : ‘寅은 正月也라’는 夏나라는 寅月로 正月을 삼았고 殷나라는 丑月로 正月을 삼았고 周나라는 子月로 正月을

삼았고 秦나라는 亥月로 正月을 삼았으니 夏나라의 法이 옳고 殷·周·秦의 道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하여 漢武帝가 夏法에 依據하여 다시 寅月을 正月로 삼은 이후 지금까지 꼭 이것을 採用하여 왔다. ‘陽已在上 陰已在下’는 丑時에는 二陽이 生하고 寅時에는 三陽이 生하니 이 때가 되면 三陰三陽之氣가 陽氣는 上浮하고 陰氣는 向下沈累하는 形勢를 이룬다. ‘人始見之時’는 丑時에 二陽이 비록 生했지만 오히려 四陰에 依해 鬱매임을 당하여 사람들이 아직 二陽之生을 볼 수 없지만 寅時가 되면 三陽이 生하여 活潑하게 欲浮하려는 氣勢를 이루므로 天地의 氣候는 微微하게나마 陽候가 나타나고 이때에는 사람 몸의 感覺도 三陽의 發生을 느끼기 시작한다. ‘故’는 위 文章을 이은 것이니 곧 사람들이 보기 始作한다는 뜻이다. ‘律管’은 十二律의 管이다. ‘飛灰’는 律管을 구리로 만들어 그 管의 반은 靜土中에 묻고 管속에 가벼운 재를 담은 후 管위를 얇은 비단으로 덮은 것으로 옛적에 이것으로 時令을 測候하였다. 즉 正月이 오게 되면 管속에 담겨져 있던 가벼운 재가 大簇管속으로부터 스스로 날아오르게 되는데 이 法에 根據하여 正月을 살펴 알 수가 있다 60). 자세한 것은 《後漢書·律曆志》에 보인다.

本文의 뜻은 正月에는 陽氣가 上浮하여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律管속에 담겨져 있는 재가 孟春之月(正月)에 이르게 되면 大簇管속으로부터 날아 올라가므로 이를 통해 正月이 三陽을 生하는 때라는 것을 살펴 알 수 있다

60) 太簇는 寅 正月과 配合한다. 참고로 十二律呂의 月別 配合관계를 보면 六律中 黃鍾은 十一月, 太簇는 正月, 姑洗는 三月, 蕤賓는 五月, 夷則은 七月, 無射은 九月과 合하고 六呂中 林鍾은 六月, 南呂는 八月, 應鍾은 十月, 大呂는 十二月, 夾鍾은 二月, 仲呂는 四月과 合한다.

는 內容이다. 《類經附翼·卷二》에서 律原을 論한 內容은 律管飛灰의 뜻이 正確하지 않은 것 같다.

‘可以述事之始也’는 寅은 正月로 三陽이 發生하기 始作하는 때요, 人身의 一切事情이 始作하는 때이니 일을 행하여(述事) 天地之氣를 도울 수가 있다. ‘寅’은 물이 길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津’은 나룻터이며, 氣液이며 또 引(끌 인)으로도 解釋한다. ‘涂’는 途와 같으니 道路의 뜻이다. 이 말은 이때가 되면 萬物이 生發하는 氣液을 받아 生長의 길로 끌고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寅也’며 ‘津也’라고 한 것이다. 이 句節은 또한 다음과 같이도 解釋할 수가 있다. “이때가 되면 陽風이 解凍하고 細水가 長流하여 萬物이 모두 氣液을 生長시키는 길로 進入한다.”

古文의 寅字는 𠄎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陽氣가 上浮하려고 하나 土陰이 아직 強하여 이르지 못하고 있는 뜻이다. “𠄎”는 陰氣가 강하게 막고 있는 象이요, “𠄎”는 陽氣가 아래에서 脫出을 企圖하고 있는 모습이다.

卯者는 日升之時也라 又卯는 茂也니 言二月에 陽氣盛而孳茂라

<解說> : ‘卯者는 日升之時也’는 <六微旨大論>에서 말한 顯明之位이다. 晝夜로써 이야기하면 平旦에 夜陰이 사라지고 日陽의 光明이 始出하는 때의 氣象이다. 古文의 卯者는 “卯”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四陽二陰으로 陽多陰少하니 陰이 그 門을 열어 陽氣가 發出하는 象이다. ‘孳’는 낳아서 짓먹여 기른다는 뜻이니 有情(喜怒哀樂의 感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生化가 極盛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茂’는 無情한 草木 등의 生化가 極盛해지는 것을 말한다. 卯는 二月이니 이때에는 四陽之氣가 極盛해져서 萬物의 發育이 이미 다 드러나고 動植物 등이 다

孳茂하게 되므로 卯에는 茂의 뜻이 있다고 한 것이다.


辰者는 陽已過半이니 三月之時에 物盡震而長이라 又謂辰은 言震也라

<解說> : ‘陽已過半’은 卯時에 四陽이 生하고 辰時에 五陽이 生하니 陽氣가 生長하는 것이 이미 半을 지난 것이다. ‘物盡震而長’에서 震字는 辰字를 解釋한 것이다. 辰은 三月之時니 이때에는 五陽이 盛하기 때문에 萬物이 다 發生하여 힘차게 生長을 한다. ‘辰은 言震也라’는 萬物이 움직이는 것으로 發動의 뜻이다. 《五行大義》에 “辰者는 震也니 震動奮迅하여 去其故體也라.”하였다.


古文의 辰字는 “辰”라 하였다. 이때에는 우리소리가 震動하고 백성은 農事에 부지런히 일하니 農作物이 까끄라기(芒)를 生하는 時節이다. 그러므로 “辰”은 우리소리가 震動하는 象이고 辰字 中間의 “二”는 古文의 上字이니 우리소리가 上動하는 뜻이고 “山”은 物芒이 外達하는 象이다.

巳者는 四月이니 正陽而無陰也라 自子至巳陽之位니 陽於是當이라 又巳는 起也니 物畢盡而起라


<解說> : ‘正陽’은 純陽이다. 巳四月에는 六陽이 다 生하여 그 사이에 一陰도 存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正陽이라 한 것이다. ‘當’은 去聲으로 읽으니 主字로 解釋한다.(當이 平聲일 때에는 當할 當字이고 去聲일 때에는 주관할 當, 관장할 當字이다.) 子生一陽(☰)하고 丑生二陽(☱)하고 寅生三陽(☲)하고 卯生四陽(☴)하고 辰生五陽(☵)하고 巳生六陽(☶)하니 陽氣가 子에서 부터 巳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發生해 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子에서 辰까지는 모두 陰氣를 兼해 있으므로 陽이 單獨으로 主人役割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단 巳四月의 때에 이르르면 陽

氣는 全部 生發하여 陰을 띠고 있지 않으므로 天地의 造化作用이 완전히 陽氣 홀로 主人이 되어 作用을 하게 된다. ‘起’는 純陽의 支配아래 萬物이 品性을 다하여 生長을 일으키는(起) 象이다. 古文의 巳字는 “”라 쓰는데 陰이 숨고 陽이 나타난 모습인데 萬物이 모두 드러나 文章을 이룬 象이다.

午者는 陽尙未屈한데 陰始生而爲主라 又云午는 長也며 大也니 物至五月하면 皆滿長大矣니라


<解說> : 午時에는 一陰이 始生하니 비록 五陽이 아직 盛하여 屈하지 아니하였지만 一陰이 始生하는 때이므로 이 陰氣가 主張이 된다. ‘陰始生而爲主’는 陽이 盛하여 아직 屈하지 않았는데 一陰이 始生하니 비록 陰氣는 微弱하지만 이미 主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음 句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때에는 盛陽이 微陰과 交습하기 때문에 午五月中에는 萬物이 모두 가득하게(盈滿)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午는 長也며 大也”의 뜻이다. 古文에서 午字를 “”라 쓰는데 이는 一陰氣가 生하여 陽中을 衝逆(찌르며 올라가다)하고 있는 象이다.

未는 六月이니 木已重而成矣라 又云未는 味也니 物盛而有味니 與辛同意라

<解說> : 午時에 一陰이 生하고 未時에 二陰이 生하여 四陽이 있게 되므로 未六月中에는 陰陽이 相交하여 草木의 枝葉이 繁盛하고 무거운 氣勢를 이룬다. 未는 木字에다 一劃을 더한 것이니 여기에는 ‘作’의 뜻이 있다. 古文의 未字는 “”로 쓰는데 바로 이 뜻이다. 未에 味의 뜻이 있는 것은 대체로 이 때는 二陰四陽이니 陰陽이 會습된 상황 아래 萬物이 다 成熟하여 자기의 맛(味)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이 사실이 未는 十干의 辛과 同義라고 한 內容이다. <十干篇>에 이르기를 “金味辛

物成而後有味”라 하였는데 이것이 ‘與辛同義’의 根據이다. 그러나 辛의 이른바 味는 陰氣의 收束에 의해 생긴 것이요, 未의 이른바 味는 二陰과 四陽이 會습하여 이룬 것이다. 따라서 ‘有味’의 뜻은 辛과 未에서 그 意味가 不同하지만 辛과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申者는 七月之辰이니 申은 陽所爲而已라 陰至於申 則上下通而人始見이니 白露葉落이 乃其候也니 可以述陰事以成之니라 又云申은 身也니 言物體皆成이니라

<解釋> : 申時에 三陰이 生하고 三陽이 退하므로 申七月의 時令에는 陰氣가 퍼지고 (申) 陽氣가 물러가 生發之事가 더 이상 進行하지 못한다. ‘所爲’는 陽氣가 生發하는 作用이다. 申時에는 三陰之氣가 天地上下之間에 通行하므로 사람들은 이때에 白露가 盛히 내리고 草葉葉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곳에서 말하는 白露葉落은 三陰이 上下에 通하는 徵象이다. <淮南子>의 “一葉落而知天下秋”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可以述陰事以成之’는 陰事를 行한다는 뜻으로 처음 禮記의 月令에 나온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陰事를 行하여 天地의 陰氣를 도와 이룰 수가 있다. ‘身’은 이때 三陰의 收束(收斂)을 받아 萬物의 身體가 成就하게 되므로 ‘申’을 ‘身’이라고 한 것이다. 古文의 申字는 “”으로 쓰는데 이는 손가락에 物件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가 되면 陰氣가 收斂하고 收束하여 升發하지 못하게 한다.

酉者는 日入之時니 乃陰正中八月也라 又云酉는 緇也니 萬物이 皆緇縮收斂이라

<解說> : ‘正中’은 最中의 뜻이다. 酉時에는 四陰이 生하고 단지 二陽만 남기 때문에 陰氣가 閉藏을 시켜 開發하지 못하게 한다. 晝夜로 말하면 太陽이 땅속으

로 들어가고 夜陰이 閉塞하는 때이다. 이때에는 陰氣가 한가운데 收藏되어 있으니 이것이 八月 陰氣의 徵象이다. 古文의 酉字는 ‘酉’ 或은 ‘𠂔’로 쓰는데 모두 陰氣가 收藏閉關되어 있는 象이다. “縮”은 이때에 陰氣가 盛하여 萬物이 다 縮收斂한다는 뜻이다. 酉를 縮字로 解釋한 것은 《晉書》와 《說文》에 보인다. ‘收斂’은 發할 수 있으나 發하지 않고 펼 수 있으나 퍼지지 않고 오를 수 있으나 오르지 않는 것이니, 거두어 내려 收縮시키고 닫는다는 뜻이다.

九月은 戌이니 陽未既也라 然이나 不用事하고 潛藏於戌土中하니 乃乾位戌이 爲天門故也일새라 又云戌은 滅也니 萬物이 皆衰滅矣라

<解說> : ‘既’는 盡의 뜻이다. 九月은 戌이니 이때에는 五陰이 비록 盛하지만 아직 陽이 남아 있어 陽氣가 다 사라지지 않은 때이다. 天地間에는 五陰이 用事를 하고 一陽은 用事를 하지 않고 다만 陰中에 潛藏되어 있을 뿐이다. ‘戌土’의 ‘戌’를 다른 판본에 ‘戊’로 한 것이 있는데 옳지 않다. 九月은 十干에서 戊가 된다. 이 달은 五陰一陽이니 이 가운데 一陽이 戌土에 潛藏한다. 그래서 戊字 가운데 一點을 더하여 戌字를 이룬 것이다. ‘乃乾位戌爲天門故也’는 文王 後天의 卦位이다. 이는 “乾이 戌의 위치에 자리하는 것은 戌로 天門을 삼는 것이다.”라는 意味이다. 戌은 陽氣가 土中에 潛藏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乾位를 삼은 것이다. 또 戌은 陰盛陽缺之處로 사람의 宮室에 비유할 때 缺處에는 항상 門戶를 설치하듯이 戌은 陽이 缺乏한 곳이므로 天門이라 이름한다. 一說에 ‘位戌’의 戌字는 옹당 ‘戊’로 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天門之戶에 關한 詳細한 內容은 《類經圖翼》中에 자세히 說明하였으니 參考해 보기 바란다.

‘戌은 滅也’라고 한 것은 《說文》에 詳細히 나온다. 이때에는 陰의 殺氣가 盛行하고 陽氣의 生發은 滅弱하여 萬物이 모두 衰滅로 달려 가므로 戌에 滅의 뜻이 있게 된 것이다.

十月은 亥니 純陰也라 又亥는 劾也니 言陰氣勃殺萬物이라

<解說> : ‘純陰’은 단지 陰氣만 있고 一陽도 섞이지 않은 것이므로 純陰이라 稱한 것이다. 이 때에는 六陰이 다 드러나니 純全히 陰氣일 뿐이다. ‘亥 劾也’는 《晉書》에 詳細히 나온다. ‘劾’는 害하다, 殺하다의 뜻이다. 이때가 되면 六陰이 盛하여 萬物을 해치고 죽이므로 亥가 곧 劾이라고 말한 것이다. 古文의 亥字는 ‘𠂔’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萬物이 땅속에 들어가 草木의 根核이 안에 머물면서 자라고 있는(含育) 象이다.”⁶¹⁾이라고 하였다.

IV. 結論

본 論文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說文解字》, 《史記》, 《漢書》, 《釋名》, 《素問入式運氣論奧》 등에 나타난 十干과 十二支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研究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研究의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天地變化의 근본원리인 天五地六, 五運六氣의 원리에서 각각 陰陽이 內在하므로 天干과 十二地支가 나오게 되었으며 각각 天道와 地道의 마디를 나타내고 있다.

2. 十干과 十二支는 순환하고 있는 天地의 變化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61) 劉溫舒 前掲書 pp.13-14.

3. 干支·事物이 一年의 變化속에서 由微而盛하며 由盛而衰하여 反復的으로 變化發展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4. 生氣의 變化는 草木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므로 草木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5. 說文解字에 나타난 十干을 人體의 頭部에서 足部까지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취상한 것은 別說로서의 價値가 있다.

參考文獻

1. 殷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社 1984
2. 班固 漢書 臺北 鼎文書局
3. 司馬遷 史記 臺北 宏業書局
4. 劉熙著 琬謙撰集 釋名疏註補 上海古籍出版社
5.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